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인도자: 가족 중 직분자 또는 연장자

■ 묵도 - 묵도하심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 인도자

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 이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8-11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 - 559장 / 다같이

■ 기도 -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온 가족을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동안 모든 가족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임을 기대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고가는 가운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추석 명절 전체 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풍성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 말씀봉독 - 시편 1편 1-3절 / 가족 중에서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말씀 - 제목: 복 있는 사람 / 인도자

오늘은 우리가 하던 일들에 대한 결실을 맺고 그것을 나누는 날인 추석을 맞이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인 대답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룬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경험하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좋은 결과를 얻는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삶은 망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으며, 성공하기 보다는 나쁜 결과를 얻고, 망할 때가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복은 그런 의미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열매 맺고, 시들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과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잎사귀가 말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계속해서 필요한 양분과 물을 공급받는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 것 자체에 집중하여 항상 열매를 맺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오해라는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항상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다시 말해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시기에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에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복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는,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그 결과가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거두셨다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힘든 시간 가운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들지 않도록, 합당한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찬송가 559장(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430장(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4. 옛 선지자 에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걸겠네
-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